

# “캐스퍼 연 15만대 생산 체계 구축·노사갈등 해결 시급”

광주시의회-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주관 GGM 정상화 토론회

### 채은지 의원 “광주형일자리 임금·노동 조건 개선·다양화 필요” 노조 “캐스퍼 유럽 현지 생산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취지와 상반”

광주형일자리 대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광주형일자리 만들기 위해선 GGM을 연 15만대 생산 가능 공장으로 확대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경영계, 노동계가 이재명 새 정부에 GGM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채은지·박미정 광주시의원 주관으로 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청년상생형일자리 확대·지속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GGM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현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GGM의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노동 삼권제가 보장된 ‘노동 존중 경영’을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GGM의 현재 구조에 대해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의 결실이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주제였던 노동자가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서 “노조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게을리하거나 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 기본권 침해이며, GGM이 지속 가능한 공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정상화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GGM 노사 간 핵심 쟁점인 공장 생산 규모 확대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 과제로 원론적이지만 노사관계 정상화를 제안한 것이다.

연 최대 15만대 생산이 가능한 GGM은 2021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지만 1교대 근무 체계인 현재 시스템상 연평균 5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2만 7000여대의 주문이 밀리면서, 국내 기준 구입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유럽 등 해외는 2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노조의 반대로 2교대 근무가 무산되면서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반대 당시엔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현재는 생산량 증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채은지·박미정 광주시의원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청년상생형일자리 확대·지속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간 최소 15만대 이상 생산 체계가 돼야 완성차 공장의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게 정설로 통한다.

노조 역시 GGM도 캐스퍼 외 다른 차종을 함께 생산할 수 있도록 현대차의 투자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GGM처럼 위탁생산을 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모터는 기아 모닝·레이·스토닉·니로 플러스 등 4개 차종을 연간 27만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가 별다른 이유 없이 GGM의 생산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캐스퍼를 유럽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광주일보 7월 31일자 1면)하고 있

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지부장은 “GGM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광주형일자리 버전2’를 만들며 연 15만대 이상의 생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새 정부에 지역사회 전체의 요구를 일관되고 꾸준히 전달할 필요도 있다”며 “앞으로는 정치권, 시민단체,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정기적인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지역 제조업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GM노조는 “GGM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해외에서 동시 생산하는 것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형일자리 본연의 취지와 상반된다”며 “유럽 현지 생산은 국내 공장을 축소시켜 제조업 공

동화와 부품사 공급망의 동시 몰락을 가속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로 나선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상생정책을 넘어 임금·노동 조건 개선과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광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시의회의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GGM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사회적 합의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을 아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기업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정부, 경제형벌 완화 시동

### 주조조작, 생명·안전 중대범죄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경제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정부가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전환 대신 금액은 상향하고, 행정제재를 먼저 한 뒤 형벌하는 방식과 함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한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조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

련 위험 등 중대 범죄에는 과징금·과태료를 상향해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제약 없애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대기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고령화에 가계부채 떨어진다...KDI “2070년 27%P 줄어든 듯”

### 1분기 가계부채 비율 90.3%...기대수명 증가 가계부채 영향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 고령화 심화 현상과 맞물려 수년 내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에는 90.3%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김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 별 인구 구성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반면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주택 자산 수요가 높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이 이를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계부채가 발생한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청년층(25~44세)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하면 가계부

채 비율은 약 1.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년(2003~2023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33.8%p)을 분석하면 28.6%p는 기대수명 증가로, 4.0%p는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

김 위원은 향후 기대 수명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현상 심화를 고려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 내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70년에는 고령화로 인한 하락 효과(-57.1%p)가 기대수명 증가의 상승 효과(29.5%p)를 압도하면서, 현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27.6%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마사지 ‘폴리오’ 반값에 구입하세요”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행사장에서 고객들이 마사지기계 전문 브랜드 ‘폴리오’를 체험하고 있다. 팝업스토어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깨 마사지기기와 허벅지 마사지기, 어깨 마사지기기와 종아리 마사지기 등 세트 기획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구매 금액대별 5% 상당의 롯데상품권 증정 사은 행사와 브랜드 자체 구매 감사품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의료생협 설립 더 쉬워진다

### 출자금 1억원→5천만원 완화 생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 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린다.

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5일 광주신세계 본관 4층 ‘송지오 파리’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신제품 옷을 살펴보고 있다. ‘송지오 파리’는 신규 오픈을 기념해 10% 이상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 트렌드 반영...브랜드 리뉴얼

### 30개 브랜드 매장 확장·입점 등 송지오 파리 오픈 기념 할인 행사

광주신세계는 “트렌드를 반영해 신규 브랜드를 늘리고 순차적으로 매장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8월 한달 간 총 30개의 브랜드를 리뉴얼하거나 새단장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에서 만날 수 없었던 ‘송지오 파리’와 ‘드라운드’가 새롭게 입점하며, 본관 4층에 자리한 ‘송지오 파리’는 1993년 런칭한 ‘송지오’의 여성라인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올해 신규 오픈을 기념해 1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NS를 활용한 연이은 셀럽 마케팅으로 유명한 ‘드라운드’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로, 광주신세계는 트렌디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성의

여성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크’, ‘베네통’, ‘일라일’, ‘시리즈’, ‘커스텀 멜로우’, ‘메트로 핸드백’, ‘닥스 핸드백’, ‘케어링 신글라스’, ‘크리스피 바바’ 등 영캐주얼-컨템포러리-남성-생활 브랜드도 순차적으로 리뉴얼 오픈하고 고객을 맞이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골프 브랜드와 유아 의류 매장이 확장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신규 F&B 브랜드인 ‘부창제과’, ‘어썬팝콘’과 함께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땅콩빵’ 팝업스토어도 재진행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트렌드를 반영해 전 연령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신규 입점하고 리뉴얼 오픈을 준비했다”며 “차별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꾸며진 광주신세계를 만나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20대 사원보다 50대 부장 더 많다...기업 ‘세대역전’

### 리더십인력 분석...30세 미만 19.8%

2015년 조사 시작 후 처음으로 국내 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적어지는 ‘세대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십인력스가 2022년부터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감소한 19.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한 20.1%였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30세 미만 인력 비중도 2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은 2022년 23만5923명(21.9%), 2023년 23만888명(21.0%), 2024년 22만1369명(19.8%)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50세

이상은 2022년 20만6040명(19.1%), 2023년 21만4098명(19.5%), 2024년 22만4438명(20.1%)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간 격차가 컸던 업종은 이차전지료, 최근 3년간 30세 미만 비중이 9.7%포인트(7789명) 줄었고, 50세 이상은 1.2%포인트(496명) 늘어 격차가 10.9%포인트에 달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98.00 (+50.25)
↑ 코스닥	798.60 (+14.54)
↑ 금리 (국고채 3년)	2.425 (+0.004)
↑ 환율 (US D)	1391.10 (+5.90)
〈오후 5시 39분 기준〉	